

상식과 원칙으로
소통과 나눔의 세종의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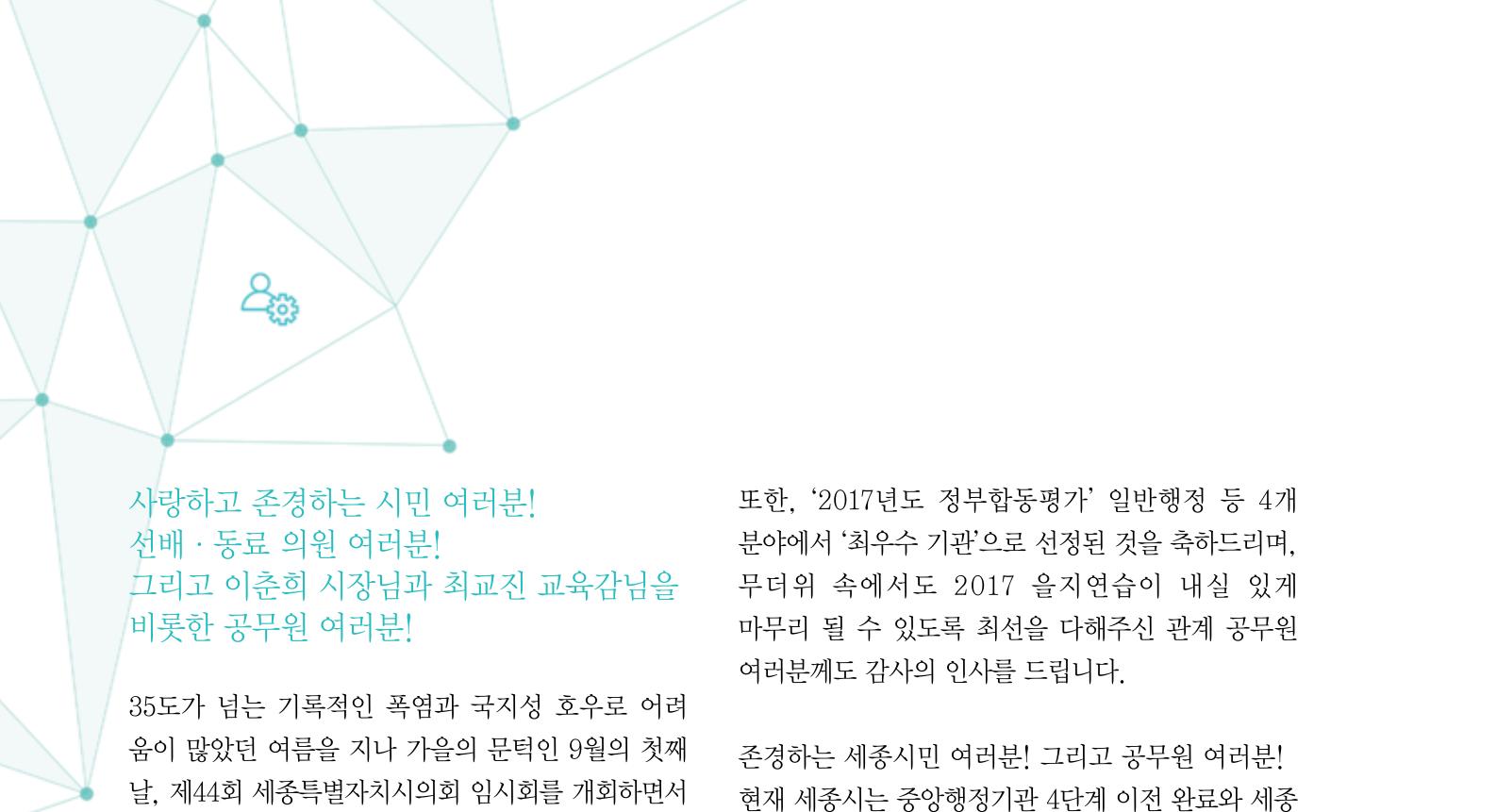
통권 제 17호

세종의회 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Sejong City Council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35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로 어려움이 많았던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인 9월의 첫째 날,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제43회 1차 정례회 이후 비회기 동안 침수피해 지역 복구 활동 참여와, 시정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무더위 속에서도 2017 을지연습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 완료와 세종 ~서울 고속도로 건설 확정 등 행정수도 기반구축과, 도농의 상생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산업 인프라 확충 등 내실을 다지며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었다면 이제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선제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부여에 따르는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 및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8월 29일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의 결집과 전 국민의 관심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지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국회통과와 행정중심복합 도시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박차를 가하는 지금도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참여뿐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 대책위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공동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탄생한 도시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전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완성을 위해서는 미 이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가 조속히 이전해야 할 것이며, 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인 일정이 하루빨리 마련되도록 관련부처에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에 행안

부와 과기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 청사 신축예산 설계비 1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비가 우선 반영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분원에 대한 예산도 추후에 편성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만 세종시민과 여기 계신 공무원,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때만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부는 지난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업무보고 시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실현 및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어 그 첫걸음을 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특성과 행정수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강화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을 독립하는 방안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상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의회차원에서도 전국시·도의회와 공조하여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44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에서는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제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코자 임시회 중간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의사일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세종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공무원이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가 임박한 시점까지도 소관부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의장의 직위를 떠나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종 시민과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행정수도 완성도 좀 더 앞당겨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본연의 업무조차 소홀히 하는 일들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그만큼, 아니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를 계기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종시민들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올 초 계획한 사업들이 상반기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주시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나 불합리한 제도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년간 여름햇살같이 뜨거운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수도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27만 세종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고준일



Contents

-
- 04 세종의정 소식
 - 28 고준일 의장 논평
 - 30 5분 자유발언
 - 39 연구모임 활동
 - 43 주요 안건 처리 현황
 - 46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 54 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
 - 56 세종시 가 볼만한 명소 소개
-



News

세종의정 소식





세종시의회, 제44회 임시회 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 간의 회기로 제4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 ▲ 1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 이경대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이어 제4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청취했다.
- ▲ 9월 4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고 ▲ 마지막으로 9월 15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4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는 「2017년 청소년 의회교실」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의회 체험 및 견학활동에 가락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45명이 참여하여 본회의를 방청했다.



~~~~~



## 세종시의회, 집중호우 피해복구 현장방문 나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7월 20일 지난 7월 16일 우리 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진행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전동면 피해복구 현장과 조치원읍 배수장을 방문했다.

지난 7월 16일, 우리 시를 비롯하여 청주, 천안 등 충청권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지역 일부지역의 도로가 유실되고, 시설물이 침수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우리 지역에는 전동면이 199mm로 최고 강우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날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동면 노장리 도로 유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복구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구하였으며, 이어 조치원 지역일대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인 남리 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펌프의 노후화 상태 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등 의회차원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준일 의장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세종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 비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 태풍, 폭우를 대비한 침수대책 등 자연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7월 27일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 협조를 받아 의원 및 사무처 직원 30여명이 사상 유례없는 기습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를 찾아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미원면 일대는 곳곳에 숨어 있는 9개의 경승지인 옥화9경이 있는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달천천을 따라 펜션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번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날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폭우로 인해 물에 잠겼던 펜션 내부의 벽지와 쓰레기를 제거하고 부서진 구조물과 설비를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에 힘썼다.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김복렬, 이태환, 정준이 의원은 “피해 주민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복구활동에 참여했다.”며 “갑작스런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청주시민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희망 한다면서 덧붙여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 청주지역 폭우피해 복구지원에 구슬땀



~~~~~



제4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안찬영 · 이태환 · 이충열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주관하고, 전국 시·도의회가 후원하는 ‘제4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세종시의회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이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중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이번 시상식은 4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7일 14시 대전 호텔 ICC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서 세 의원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특히, 각자의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뿐만아니라 각종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열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의 안전 및 복지분야에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점 등이 의장 협의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수상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본 상의 진정한 수상자는 세종시를 만들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세종시민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세종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9월 8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준이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는 이충열 의원(제8선거구, 자유한국당)을 각각 선출했다.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정준이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과 함께 김복렬, 김원식,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준이 의원은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에 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개 헌 당위성 논리 개발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 개헌특위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방문,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市 집행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 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9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市 집행부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먼저, 행정수도완성개혁특위은 국회 개혁특위(이주영 위원장)에 '세종시=행정수도'의 개헌헌법 명문화 건의 및 당위성 설명, 市 집행부·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실시, 전국시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의 활동이 포함된 계획을 워안가결하고 채택하였다

또한, 고기동 市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다.

정준이 위원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이 개헌헌법에 명문화 될 수 있도록 의회, 市 집행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행정수도 완성개헌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밀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



## 세종시의회, 역대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가 7월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세종시 전신인 연기군의회 초대 임해수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장을 초청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해수(연기군 초대), 오운교(연기군 1대), 황순덕(연기군 2대), 조선평(연기군 2대, 5대), 임태수(연기군 3대), 황우성(연기군 4대), 진영은(연기군 5대), 유환준(세종시 초대), 김용구(청원군 1대) 등 세종시 편입지역을 포함한 총 9명의 역대 의장들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 후 본회의장 등 변화된 의회 신청사를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의장은 “역대 선배 의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뜻 깊게 생각하고, 오늘의 세종시의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신 역대 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사람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라며, 역대 의장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직 의장들도 한 목소리로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세종시 발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9월 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 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7억 3천만원이 늘어난 8천 356억 3천만원(0.93%)이며, 이날 심사 결과에 대해 김복렬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신규 사업과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봤다”고 밝혔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대변인) 소관 ‘행정수도 완성 전국 언론 매체 홍보’ 2억원,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수도 홍보물 제작’ 8천 2백만원 등으로, 이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국적인 홍보활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 (서금택 위원) 행정수도 완성 홍보관련 예산이 증복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 부서들끼리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김선무 위원) 가로수에 병해충 발생으로 고사목 발생사례를 지적하며, 이번 추경예산으로 감시 인력이 증원되어 제대로된 산림병 해충예찰 활동을 기대하면서 산림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 (김정봉 위원) 국가하천 친수지구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실효성 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주문하였고
- (박영송 위원) 추경예산에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대상지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과 장기적인 안목을 당부 하였다.
- (정준이 위원) 개헌관련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명시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 (임상전 위원) 세종시 홍보관련 신문을 통한 홍보보다는 인터넷 포털 등의 활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9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 등을 심사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환경 등에 대비한 물품 구입과 신규사업 추진 시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6천만원이 늘어난 5,410억 9천여만원(0.85%)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호수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3억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뭄긴급대책 농업용수개발 사업 5억원, 마을공방 조성사업 4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 안찬영 위원장은 호수공원 문화휴게 복합시설 설계 시 공간 구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김원식 위원은 조치원읍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상주 근무인원에 대해 당초 계획대비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장승업 위원은 마을공방 조성사업 추진 시, 주변 상권과의 중복여부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입주 업종을 선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경대 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에 대해 기존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과의 차이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대상지 선정시 읍·면간 과열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윤형권 위원은 전의초수 가치발굴 및 보존방안 연구용역 추진 시, 전의초수 효능의 우수성을 뒷받침해주는 역사기록 등에 대한 고증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혔다.
- 이충열 위원은 공공자전거 추가 구입 시, 공공자전거 대여 방식에 관련된 최신 기술을 반영한 제품을 구입하여 유지·관리비 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위원회, 2017년도 제2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5일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7억 1천5백여만원(2.6%)이 늘어난 8,248억 3000여 만 원이다.

위원들이 질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 이충열 부위원장은 EBS교육방송지원 분담금과 관련하여 영어교육방송의 관내 학생 시청률과 홍보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이어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은 타시도와 다르게 세종시는 신설학교가 많아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 박영송 위원은 시각장애용대체교과서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절차를 준수할 것과 점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구매하여 교과서 뿐 아니라 동화책 등 시각장애인 학생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내 시각장애인 중 성인이 점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세종누리학교에서 제공 해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 안찬영 위원은 전체적으로 성립전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또한 시각장애는 선천적보다 후천적인 경우가 많고, 시력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시력이 남아 있을 때 점자를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시각장애인 관련 정책은 전문가와 협의하여 세심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조했다.

- 이경대 위원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학교 선정 기준 및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또한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대해 거듭 질문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

## 제2대 세종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고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봉)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김정봉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영송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했다.

이번 제2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는, 9월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2017년 예결특위 위원 구성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은 7명으로 김정봉(위원장), 박영송(부위원장), 임상전, 이경대, 이충열, 안찬영, 이태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6일 1차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된 김정봉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송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고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청이 상정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207억 원이 증액된 8,248억 원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학생 건강·안전, 교육시설 개선·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어 7일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와 질문이 이어졌으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세종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3억원 증액된 1조 3,820억원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추경에 따라 교부된 국비 등 예산을 반영하고 행정수도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김정봉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인지, 정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근거를 토대로 편성이 이뤄졌는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세심하게 예산을 살폈다”고 밝혔다.



## 행정복지위원회,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가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9월 8일 세종시 유일의 아동복지시설인 '영명보육원'(연서면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영명보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도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행정복지위원들은 영명보육원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한 후, 영명보육원의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영명보육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영명보육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9월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영송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시정에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하여 상정된 세종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3억원 증액된

1조 3,820억원이며, 교육청이 상정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7억원이 증액된 8,248억원으로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또한,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 협의회 규약(안),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 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9월 11일,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9건을 심사 했다.

이날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 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으로, 심사 · 의결을 통해 조례안 9건과 동의안 9건은 원안가결하고, 「세종 특별자치시 행정동 ·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신규 행정동(한솔동 · 새롬동)의 업무 개시일과 관할 구역 조정일이 일치하도록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

##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개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안찬영 위원장)는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였다.

먼저 11일 제2차 회의 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면서

- 안찬영 위원장은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김원식 위원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각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에 도움되는 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장승업 위원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문화원의 상생발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윤형권 위원은 최근 무산된 바 있는 조치원 전통시장 내 청년 물 조성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국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 이충열 위원은 착한가격 지정업소가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도심 내 착한가격 지정업소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세종시 신도심의 높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이태환 위원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12일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통과 및 가결했다.

### •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종-공주 씨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통과되었고, 덧붙여 전의초수 등 스토리텔링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흥미로운 투어코스를 개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세종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7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9월 13일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의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교육감과 학교장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 이경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이용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조례로, 관리 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에 대한 위원별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 (이태환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시 언급한 경기도 우수급식 사례처럼 우리시에서도 양질의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이충열 부위원장) 당암초등학교 역사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폐교의 역사와 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을 당부했다.





## 교육위원회,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 센터 등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4일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도봉구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타 시·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마을방과후학교 사업 등의 정책 추진 및 사업현장의 노하우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향후 세종시정 및 교육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세종시청·교육청 관계 공무원들도 동행하여 교육위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세종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먼저, 지난 4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는 초·중·고 각급 학교의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은 센터 현황 청취 후 학교협동조합 교육, 설립 지원, 경영지원과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 교육과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협동조합 설립·운영의 노하우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확인했다.

이어, 교육위원들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를 방문했다. 하자센터는 1999년 개관하여 서울시 청소년의 대안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하는 청소년 직업체험 특화시설이다. 교육위원들은 하자센터 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을 청취받고,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센터 시설을 둘러봤다.

또, 하자센터 운영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의 예산지원 현황을 확인했으며, 교육위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세종시에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센터 설립에 한 목소리로 의견이 모아졌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로 방과후학교를 지자체와 마을에서 맡는 새로운 모델을 운영 중인 도봉구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센터를 찾았다. 도봉구는 지난 2월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박동국 도봉구 교육정책특별보좌관으로부터 도봉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배경 및 과정, 마을방과후활동 운영현황과 5개 시범학교 사례에 대해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운영센터, 교육지원청, 학교간 각 주체의 업무분담 등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방법 및 프로그램, 예산, 마을교사 모집 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서울시의 우수사례와 정책추진과정의 어려운 점을 확인했고, 우수사례는 우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접목시키고, 어려운 점은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여 더 발전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학교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방과후활동 등이 우리 시에서도 잘 준비되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세종시의회, 제44회 임시회 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9월 1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44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윤형권 의원, 이충열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2017년도 세종시청 및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처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 등 총 4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의 조례로는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장승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이경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한편,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는 종촌초등학교(세종시 종촌동 소재) 지도교사 및 학생 47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 장면을 방청했다.



~~~~~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적법, 유효해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제43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방과후학교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세종시지부가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고문변호사와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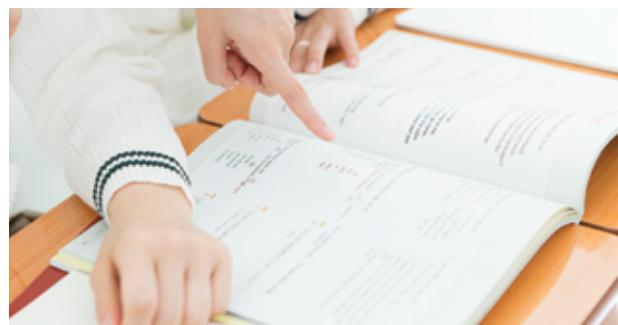
주된 자문결과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는 교육행정을 준수해야 하는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등과 같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7추103)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뜻하므로,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려면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나 「초·중등교육법」에는 그러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

셋째, 세종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학교장에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률우위원회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는 지난 10년 넘게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조례로, 지난 해 3월부터 교육청 협의 5회, 입법 간담회 1회, 교육부 질의 등을 통해 제정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방과후학교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 교사, 학부모,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세종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가 ‘학교장과 교원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후활동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법률유보원칙 위배)’되었고, ‘학교장에게 부여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어 법령위 범위내에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법률우위원회 위반)’고 주장한 바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소속 윤형권 의원 주관으로 8월 30일(수) 17시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향에 따라 우리시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 마련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자로는 김종효 노사발전재단 대전·충청사무소장, 황보우 세종시민이 참석해 생활임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좌장에 윤형권 의원, 주제발표는 안유상 세종시 투자유치과장이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은 2016년 6월 기준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활임금 적용대상, 결정방식 등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논의와 최저임금법 및 계약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종효 소장은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제 확대는 민간 업체의 협조와 책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며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윤형권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는 시기상조이지만,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장려정책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활임금제도와 함께 주거비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구성, 본격 활동 재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정지역 공공시설물의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해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김정봉 의원(무소속)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비롯하여 김복렬, 정준이, 박영송, 윤형권, 장승업 위원 등 총 7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찬영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끌어 가면서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예방 및 완벽한 시설물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

##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7월 12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사무처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자료 작성기법 습득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에 홍보자료 작성 교육 강사로 나선, 연합뉴스 이은파 대전세종충남 본부장은 “보도자료 작성의 필수조건, 언론홍보 시 유의사항” 등 온라인 기자생활에서 경험했던 생생한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오후 보고서 작성법 교육에는 교육혁신연구소 조성백 강사를 초빙하여 “보고서의 기본구조, 작성목차별 핵심 기술방법” 등 사례 연습을 통해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홍민표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은 홍보자료 및 보고서 작성 기본 원리의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기획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학생 맞춤형 견학 프로그램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지난 7월 13부터 14일 양 일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3일, 소정초 4학년 “의원면담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이해”는 소정초등학교 4학년 학생 23명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 제시하기”란 주제로 쓰레기 문제, 문화시설 부족, 면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 손수 작성한 면담지를 소정면을 지역구로 둔 이경대 의원에게 제출하고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14일 오전, 보람중 학생회 “청소년 법제관 현장교육 실시”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법제관 현장 교육을 위해 보람중학교 학생회 27명이 방문하여 의회의 의사결정과정과 입법절차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람중학교 소재지인 보람동 지역구 의원인 윤형권 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태환 의원이 학생들을 맞이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 과거 학생회 경험을 통해 현재 의원이 된 경험담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미래 민주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어 14일 오후, 새롭고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학습”은 새롬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사 일정인 ‘진로탐색의 날’을 맞아 의회를 방문하였고, 이날 학생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본회의장을 차례로 견학하며 의회의 회의과정을 살펴보았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정준이 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 각자의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원과의 만남, 홍보관 체험, 홍보영상 시청, 의회소개 및 퀴즈 풀기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전자회의를 소개하는 시간에는 가상의 안건을 모니터로 확인하고 직접 전자투표를 해봄으로써 전자회의에 대한 이해를 높혔다.



~~~~~

세종시의회, 3회에 걸쳐 청소년의회교실 모의의회 개최



세종시의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아름중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제4기 청소년 의회교실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아름중학교 강태연 학생 등 40명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한 청소년의회교실 모의의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영방식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유효정 학생 등 3명은 2분 자유발언으로 〈유효정〉 세종시 학교 과밀화 문제해결에 대한 제언, 〈장동휘〉 세종시 국립 도서관에 대한 문제 및 해결방안, 〈김유빈〉 자전거 어울링 설치에 관한 제언 등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박태원 학생 등 4명이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으로 먼저, 〈박태원〉 금연거리와 간접흡연 예방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 〈오민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현아〉 스마트 패드 사용에 대한 교육행정질문 〈류정인〉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조민서 학생 등 3명이 조례안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조민서〉 교통문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조예진〉 조례안 반대발표, ▶〈최재민〉 조례안 찬성발표, 실제 회의방식인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체험하고 민주의식을 길렀다.

고준일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의사진행과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몸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개성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큰 꿈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안찬영 의원, 정준이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시의회와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입법과정을 배우고 몸소 체험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삼척대명리조트(강원 삼척시 일원)에서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및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2대 세종시의회 4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의 방향과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연수의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실무교육, 의회운영의 혁신적인 발전방안 모색, 지방선거 대비 공약개발 등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이를 동안 진행됐다.

특히,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4시간 동안 진행된 예산안 검토 및 심사와 성인지예산 편성 및 실무 교육은 의원 및 직원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준일 의장은 “이번 연수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다양한 의정지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역량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준일 의장 **논 * 평**



Comment 01

이낙연 총리 “행정수도 개헌” 이행 약속 지켜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8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 운영을 세종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고 밝힌 바대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한다.

Comment 02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체적인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제시 환영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8월 28일 대통령업무보고(핵심정책토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핵심 사무와 기능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발언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공감한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그 첫걸음을 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을 독립하는 방안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으로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명시 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 7월 우리 시를 자치분권 시범 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세종시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상징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5 Minutes Speech

**5분
자유발언**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대하여



김원식 의원

5 Minutes Speech

9월 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 이경대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자전거 “어울링” 예산절감 및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김원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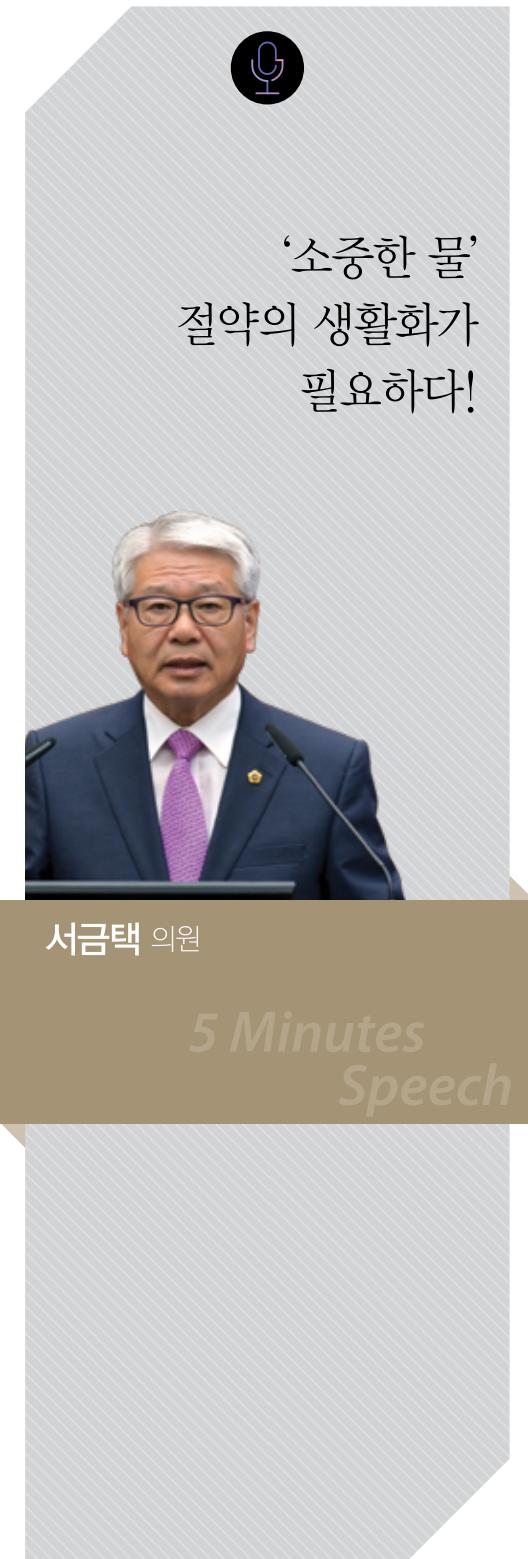
현재 세종시의 공공자전거 ‘어울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1개소당 2,200만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인구 50만 대비 대여소 442개와 대당 80만원인 자전거 5,035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7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2,000대 도입을 목표로 한 2020년 이후부터 연간 20억 원 이상이 운영비로 지출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줄이면 향후 9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과 같이 스마트 폰과 자전거 만으로 대여 및 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내용을 제시하면서 조사 대상 전체 31.8%가 자전거가 무겁다는 것을 불만족 사유 1위로 꼽았다. 또한, 서울시 공공자전거에 비해 약 2kg이 무겁고, 바퀴 크기도 2inch(인치)더 크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더욱 무게감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전거를 경량화시키고, 거치대 높이를 낮춘 줄을 이용한 탈부착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원식 의원은 공공자전거 운영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협조를 요구하고, 친환경 도시이자 명품 도시로서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서금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수설비 설치 확대 등을 통한 효율적 물 절약 실천에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을 웃도는 연간 강수량에 비해 활용가능한 수자원 보유량은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며, 극심한 봄 가뭄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지속될 경우, 더 심각한 ‘물 기근’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물 부족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물 쓰듯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시차원에서 일회성 행사나 구호가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과 절약의 생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금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는 관내 절수설비의 설치 확대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물 절약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수도법」 등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양변기는 1회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설비만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세종시 관내에 설치된 ‘절수형 설비’의 사용수량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법적 기준을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서금택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절수설비의 설치 확인이 주로 서류로 이뤄지고, 설치된 설비의 절수효과를 실제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내 공공시설 절수설비에 대한 실제 수량 확인과 더불어 더 높은 절수효과의 설비로 교체를 추진하는 등 세종시의 선제적 노력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 등 시민들의 적극적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에도 나서 줄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의초수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와 관련하여」



이경대 의원

*5 Minutes
Speech*

이경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의초수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용역 과정에 물의 성분과 효능, 지하수 양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의초수가 세종대왕의 눈병을 치료했다는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전의초수의 문화적 가치 발굴 및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먼저, 실제 물의 성분과 수질,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병행하여 초정약수 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전의초수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양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 및 현지 탐사 등 부존량 조사는 물론 전기 탐사 조사를 토대로 적절한 지점을 실제 조사하는 시추·보링조사가 추가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조사들이 적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업에 적극 반영되길 당부했다.

또한 전의초수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섬시윤 김흔지 등 7명의 인물 조사와 함께 당시의 전의현감 행적의 기록과 이야기의 추적, 관련 인물의 유서 찾기를 통해 사육신 박팽년 선생을 재조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경대 의원은 전의초수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될 때쯤 주변 지역의 역사공원 지정과 함께 물을 이용한 여가 시설을 조성해 나갈지 아니면 앞에서 언급한 역사적 인물들과 연계한 문화적 공간을 조성 할지에 대한 논의는 전의초수에 대한 현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뤄 질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

*5 Minutes
Speech*

정준이 의원은 “고령화, 이혼 및 비혼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1990년 9%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이 2015년 27%까지 급증하였고 2045년에는 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고독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종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에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완성해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출산 시대에 1인 가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본 조례는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다”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준이 의원은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대학 및 기업 입주 등으로 인해 세종시 내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며, 새로운 이웃들이 애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세종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를 제안하며



김복렬 의원

5 Minutes Speech

김복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과 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세종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장애인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세종시 출범 당시 7,081명 이었던 등록 장애인 수가 2017년 6월 기준 10,218명으로 2012년 보다 3,137명 늘어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전국의 등록 장애인 수가 2012년 2,511,159명에서 2017년 6월 기준 2,526,621명으로 15,462명이 늘어나 0.6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세종시의 등록 장애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5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주간보호시설은 625개소이고, 2,494,460명의 장애인 중 31,829명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10,434명만이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수요대비 서비스 욕구 충족률은 3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덧붙여 세종시의 경우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복렬 의원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서비스 요구 충족을 제고하기 위해 주간보호시설의 추가 설치가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설치 ▲ 신도시 지역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추가 설치 등이다.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협력체계 구축 필요



박영송 의원

5 Minutes
Speech



9월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임시회 제 2차 본 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영송 의원은 “학생들이 세종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보호받고 배울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 구현을 위해 시청, 교육청, 지역사회 간 교육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협력체제를 전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0~24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여성·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돌봄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아파트 단지 내 유휴시설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춘 만큼 이 공간이 학생들의 휴식과 배움을 위한 터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정책적·행정적으로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서울시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경기도 시흥시의 ‘시흥행복 교육지원센터’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협력체계 구축은 교육거버넌스 체제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송 의원은 유권자로서 권리가 없고 아직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시민임을 자차 강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시청, 교육청, 지역사회의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안



윤형권 의원

*5 Minutes
Speech*

9월 1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윤형권 의원, 이충열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민·관·학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자치분권 도시 청사진 제시

윤형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이 이주해 왔지만, 아직 다수의 행정기관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자치분권의 시범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위한 지원 약속”을 한 바 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차 아직도 이전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가 모두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을 중심으로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마련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 재정, 복지, 관광 등 각 분과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종시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원하는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윤형권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불씨를 당기기 위해서는 “첫째, 민·관·학 TF 팀을 구성하여, 시민·집행부와 의회, 전문가 모두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를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농·축산업 환경 개선 및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이충열 의원

5 Minutes
Speech

이충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축산업 환경 개선 및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현재 농촌의 실정은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쌀 소비 위축 기후변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파력하면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서유럽의 「농촌 어메니티 운동」과 인근 충청남도의 「농업환경 프로그램」 등의 선진 모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세종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농·축산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농업환경 프로그램」이외에도 농장 주변지역에 조경수 식재 및 꽃밭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공원처럼 깨끗하게 가꾸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우리시에서도 시행하여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혐오감 해결은 물론, 농촌을 다시 찾고 싶은 변화된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충열 의원은 관내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 지위 향상으로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히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연구모임
활동

01

“

세종시의회, 제4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고준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김정봉 의원)”은 7월 19일 미세먼지 감축 모색 등 세종시 대기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종합관리 센터(충남 흥성군) 및 현대오일뱅크(주) 대산공장(충남 서산시) 2곳을 직접 찾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정봉 대표 의원, 서금택, 정준이 의원과 최충식(대전충남 시민 환경연구소장), 정종관(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재(세종환경운동 연합 사무처장), 김재주(환경정책과장) 회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먼저 올 3월에 개소한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종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대기질의 실시간 감시 및 대기오염경보제 구축 ·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상시 감시기능 강화와 미세먼지 경보상황 신속 전파를 통한 건강피해 예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현대오일뱅크(주) 대산공장에서는 관계자로부터 대기환경관리 현황 및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처리현황,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가동상태 및 운영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김정봉 대표의원은 “세종시의 대기질은 점점 악화되는 추세로 대기오염측정시설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덧붙여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해 배출원 추적 및 오염물질 이동 실태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연구모임
활동
02

“세종시의회, 제5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정봉 의원)”은 8월 22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종시 대기환경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및 세종시 맞춤형 선진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김정봉 대표의원, 서금택 · 정준이 의원과 최충식(대전충남시민 환경연구소장), 박창재(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재주(환경정책과장) 등 7명의 회원이 참석 하였으며,

간담회에서는 환경정책과 정경용 사무관의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청취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회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정봉 대표의원은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세종시의 특수한 환경을 언급하면서 세종시 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충식 위원은 무엇보다 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해당 지역주민 · 사업자 · 관련인들이 함께 토론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창재 위원은 예방 우선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취약계층 · 어린이 · 노약자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소 목표 기준을 높이고, 실제 오염도가 높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요시가지와 교차로 등에 알림판을 효과적으로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금택 의원은 타시 · 도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건설현장에 자동살수시설 설치, 편백나무 심기, 나대지를 이용한 유채작물 재배로 바이오디젤과 같은 친환경연료 생산 등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준이 의원은 향후 제정될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비의 지원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우리시는 기후환경네트워크 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세종형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연구모임
활동
03

“

세종시의회, 제5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박영송 의원)”은 9월 22일, 기적의 놀이터(전남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등을 현장 방문했다.

이날 연구모임 회원들은 전남 순천을 방문하여 놀이기구 없이 조성된 전국 최초 ‘기적의 놀이터’인 제1호(‘엉뚱발뚱’), 제2호(작전을 시작하지)에서 아이들이 맘껏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놀이터 운영 성과와 향후 추가 조성 계획 등을 청취하였고, 아울러 초·중·고 진로 체험 학습 장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자연생태 체험장인 ‘순천만 습지’도 둘러보았다.

박영송 대표의원은 금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도전과 모험정신을 길러주는 신개념의 놀이터인 ‘기적의 놀이터’를 세종시에 조성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원수산 습지생태원’이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전국적인 진로체험 학습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덧붙여, “세종시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안착할 수 있도록 市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놀이·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정책간담회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충열)은 7월 27일(목) 14 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축산업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을 초청하여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농·축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각 분야별 단체장 및 연구회장들로부터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농·축산업 단체장들은 지역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거점

유통·판매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농산물 가공 및 농촌 문화체험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구제역과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애로 사항을 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인 이충열 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연내 농·축산업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모임
활동
04





Main Agenda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44회 임시회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44회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제1·2·3차 기간 동안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 이경대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 박영송 의원, 윤형권 의원, 이충열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어 제4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2017년 세종시청 및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처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01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발의자 : 정준이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1인 가구로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화 하는 대책수립이 필요함으로 이에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

02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발의자 : 서금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수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

03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발의자 : 장승업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

04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발의자 :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균거를 마련

0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발의자 : 이충열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을 조성

06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발의자 : 이경대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

07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발의자 : 이충열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품질관리지도원을 임명·위촉하여 공동상표를 유지·관리함으로써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 향상에 기여

08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발의자 : 장승업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등록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여객운송을 도모

제44회 임시회

0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원안가결)

발의자 :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의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출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읍·면·동 지역 현안사업의 자문을 위한 읍·면·동 예산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

– 기타안건 (25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원안가결)
-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의안(원안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외 17

[그 밖의 처리안건]

조례안 (13건)

– 시장 제출(10건)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외 5

– 교육감 제출(3건)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Standing committee
Special committee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김선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



김복렬 위원



김원식 위원



김정봉 위원



서금택 위원



장승업 위원

- **제44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세부 의사일정 안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 원안가결 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 9월 13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였고, 제4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 원안가결 했다.





- 제44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및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비심사보고했다. 또한, 9월 8일에는 연서면에 위치한 영명보육원을 현장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등을 청취했다.
- 아울러, 제44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을 심사하여 1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 했다. 또한, 9월 12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복렬 위원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김정봉 위원



박영송 위원



임상전 위원



정준이 위원





상·임·위·원·회·활·동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



장승업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



윤형권 위원



이경대 위원



이충열 위원



이태환 위원

- 제44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이어서 「2017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원안가결 했다.

9월 11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순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9월 1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11건을 심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 모두 원안가결했다.





● **제44회 정례회 기간** 중 9월 5일 「2017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 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9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통담당관·감사관·정책기획관·교육정책국·교육행정국·세종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청취하였다.

● **타 기관(서울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등 3곳) 벤치마킹 현장방문**

교육위원회는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4일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행정적 기반 조성 벤치마킹을 위하여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 했다.

또한 민관 협력의 마을 방과후 활동 벤치마킹을 위하여 도봉구 마을 방과후활동 운영센터를 현장방문 하였으며, 각 기관 관계자로부터 우수사례를 청취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특·별·위·원·회·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



임상전 위원



안찬영 위원



이태환 위원



이경대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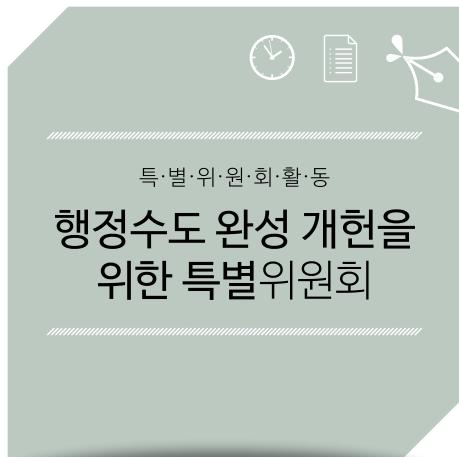
이종열 위원

-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4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어서, 9월 7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총 2건을 원안가결 했다.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된 김정봉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인지, 정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근거를 토대로 편성이 이뤄졌는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세심하게 예산을 살폈다”고 말했다.





정준이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



김복렬 위원

서금택 위원



김원식 위원

윤형권 위원



- 제44회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8일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장을 선임했다. 또한, 9월 15일에는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 앞으로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방문,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市 집행부,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찬영 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



김복렬 위원



박영승 위원



윤형권 위원



장승업 위원



정준이 위원

-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5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안찬영 위원, 부위원장에 김정봉 위원을 선임하였다.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김복렬, 정준이, 박영송, 윤형권, 장승업 위원 등 총 7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된 안찬영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끌어 가면서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예방 및 완벽한 시설물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SEJONG CITY COUNCIL
**NEWS
PAPER**

2017. 07. 21(금) • 충청투데이 정치05면

충청투데이

세종시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방문·지원방안 모색

세종시의회는 20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 진행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전동면 피해복구 현장과 조치원읍 배수장을 방문했다.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동면 노장리 도로 유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복구상

황을 청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이어 조치원 지역 일대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인 남리 배수펌프장을 방문해 펌프의 노후화 상태 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등 의회차원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강대목 기자 mudi100@ectoday.co.kr

2017. 07. 21(금) • 대전투데이 종합02면



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

대전투데이



세종시의회, 집중호우 피해복구 현장방문 나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지난 16일 관내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진행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전동면 피해복구 현장과 조치원읍 배수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동면 노장리 도로 유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복구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017. 09. 11(월) • 충청신문 정치05면

충청신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

위원장에 정준이 의원... 개원 당위성 논리 개발·국민 공감대 형성 앞장

세종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 행정수도를 위해 본격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정준이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는 이충열 의원(제8선거구·자유한국당)을 각각 선출했다.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정준이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김복렬, 김원식,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이충열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선출된 정준이 위원장은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에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개헌 당위성 논리 개발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방문,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市 집행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완영 기자 waneyong@dailycc.net

2017. 07. 19(수) • 충청투데이 지역12면

충청투데이

"역대 의장님 노고에 감사" 세종시의회 대화의 시간



세종시의회는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세종시 전산연 연구기구의회 초대 암호수(의장)를 비롯한 모든 의장을 초청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태수(연기군 초대), 오윤교(연기군 대), 홍순태(연기군 2대), 조선경(연기군 2대, 3대), 양재수(연기군 3대), 풍우성(연기군 4대), 전병관(연기군 5대), 유희근(세종시 초대), 김병구(청원군 1대) 등 세종시 편집자작회를 포함한 총 9명의 역대 의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후 본회의장 등 복수의 회의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현길 의장은 "여러 선배 의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길게 생각하고, 오늘의 세종시의회가 존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신 역대 의장님들의 노고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사람에 살기 좋은 행복의회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고 역대 의

장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석 의장들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세종시 발전의 바탕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세종=김대록 기자 msp@chungtoday.co.kr

2017. 09. 19(화) • 한국일보 충청/강원16A면

한국일보



세종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세종 조치원중학교 학생들이 18일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가 대최한 '2017년도 제2기 청소년 의회교실 모의의회'에 참가해 봉사부리 민주주의 운영 방식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이날 2분 자유발언,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 답변,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 답변, 조례안 안건 처리 등을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 가 볼만한 곳

고복자연공원

연화사를 나와서 연서면 고복리로 가면 1.949㎢ (고복리 1.949㎢, 용암리 805.864㎢)의 넓은 면적을 가진 고복 저수지를 만나게 된다.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가물치, 붕어, 잉어, 메기 등 풍부한 어종을 가지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구)연기군에서는 1990년 군립 공원으로 지정 하였으며, 주말이면 전국에서 '붕어 손맛'을 보려는 많은 낚시꾼들이 몰려드는 유명한 낚시터로 자리 잡았다. 저수지 한편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화여대 미술대 강태성 교수가 조성한 야외조각공원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고복저수지 중간지점에는 '민락정'이 있어 정자에 올라 저수지를 관망하면 그 경치 또한 일품이다. 고복저수지 주변에는 한방오리와 메기매운탕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등이 산재해 있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구어 준다. 주변마을에는 포도, 복숭아, 배를 재배하는 과수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상업시설, 숙박시설, 각종 공공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다.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용암리



비암사

전통사찰 비암사는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창간한 사찰이라고 하나 확실한 연혁은 알 수 없다. 효종 8년(1657)에 복원된 비암사 극락보전 내 담집은 그 제작 수법이 교묘하고 화려하다. 비암사에서 1960년에 발견된 국보 106호는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보물 367호, 보물368호는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주변이 숲에 쌓여있고 인적이 드물어 옛 산사의 풍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데, 이곳에 있는 수령 800년이 넘은 느티나무 또한 볼거리이다.

비암사도깨비도로 비암사 가는 산길로 약 1.3km쯤 올라가는 중간쯤에 약 150m 가량은 내려가는 길인데도 마치 올라가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이른바 '도깨비 도로'이다. 도깨비 도로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은 직접 실험을 해보기도 한다.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 • **전화번호** 044-863-0230
- **홈페이지** cafe.daum.net/bas0230 • **지정현황** 비암사 3층석탑 시유형문화재 제3호, 전의 비암사 영산회 쾨불탱화(시유형문화재 제 12호)



영평사



영평사는 1987년 주지 환성이 요사 건립부터 시작하여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6동의 문화재급 전통건물과 3동의 토굴을 갖춘 대한민국 전통사찰 제 78호의 수행도량인 영평사는 가을이면 절 안팎과 산야가 온통 하얀 구절초 꽃무리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매년 10월 열리는 장군산 구절초꽃 축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로 이름이 높다.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영평사길 124
- **전화번호** 044-857-1854 • **홈페이지** www.youngpyungs.org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세종시, 그 중심을 지나는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세종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은 360도의 조망권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강의 아름다운 정취와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도로와 신책로, 등산로 등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 캠핑장으로 거듭난다.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태산로 329
- **전화번호** 044-300-5325
- **홈페이지** <http://www.sejong.go.kr/hapgangcamp.do>

조세박물관

세금은 국방, 치안 등 나라를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국민복지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나라살림의 원천으로서 국가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조세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세박물관은 세금의 역사와 우수한 조세제도,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과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조세전문 박물관입니다.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나성동)

- **전화번호** 044-204-4646~8 • **홈페이지** www.nls.go.kr/museum





세종시 호수공원 야경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의회소식지인 「세종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이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실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세종의회
소식 2017
통권 제17호

[표지사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경사진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공보담당)

발행일 2017년 10월 통권 제17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보람동)

전화 044-300-7242

홈페이지 <http://www.council.sejong.go.kr>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